

모든 열쇠의 키는 사랑이다

작성일: 2011. 3. 29. (화) 오후 4:00

작성자: 천란

[주님께서 기도 중 가장 깊이 만나주심을 느끼며 새벽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크게 느끼며 매일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을 고백할수록 느끼게 되니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며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주님은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 하시는 듯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기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깨달으며

다시금 사랑을 고백할 때 주신 주님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은 엔진과 같은 격이다.

엔진에 따라 차의 가치가 결정된다.

사람도 사랑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고

나와의 깊이도 달라진다.

너희는 왜

사랑을 얻었다가도 금세 다른 것으로

사랑의 진리를 빼앗기느냐.

욕심, 자만, 교만, 시기, 질투, 혈기, 자존심,

너의 그 욕의 근성으로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된다.

먼저는 사랑이다.

엔진 자리에 다른 부속품이 들어간다면 시동도 안 걸리고

겉모습은 차라고 해도 차의 역할을 못 한다.

기능 상실이다.

차로서의 기능을 절대 할 수 없다.

내 앞에서도 사랑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 들어가면 신부 취급 못 해 준다.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다고 해도

내겐 사랑의 스타 될 수 없다.

엔진 자리엔 엔진이 있어야 그 기능을 하듯

신부도 사랑이 있어야 신부 될 수 있다.

쓸데없는 것에 그 귀한 사랑 빼앗기지 말아라.

늘 범사에 기도하여라.

‘마음 문 단속하라’ 함은

네 마음에서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이 귀한 만큼 사탄은 사랑을 노린다.

그 자리를 침범하려 갖은 애를 쓴다.

너도 그 사랑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써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라 함이 아니냐.

나를 불안하게 해서 유익 될 것이 무엇이나.

너희 인생길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이 든다.

내 사랑 갈구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힘든 것이 오히려 소망이지 않느냐.

세상 괴로움 다 이겨내도 얻는 것이 그 무엇이나.

허무하다. 세상 사랑 허무하다.

내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내 사랑 얻으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랑 맛 느낀 자는 알 것이 아니냐.

내게 배우고 힘들어도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유익이요, 희망이 아니냐.

내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기도 하여라.

기도가 내게 오는 길이나, 그 길을 닦는 것은 쉽지 않다.

산의 길도 매일 걸어야

그 길이 닦이고 없던 길도 나듯이

늘 내게 사랑 기도해야

사랑이 자리 잡고 사랑으로 가는 길이 닦이니

나중은 쉽고 빠르다.

힘들다 포기 말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자.

너를 향한 내 사랑의 욕심 크고도 크다.

네 욕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욕심이 더 크다.

이제 알겠느냐? 주님 마음 알겠느냐?

나는 오직 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크다.

이 내 마음 알았으니 네 마음 돌이키기 쉬울 것이다.

늘 마음 점검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순위 되도록 기도하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을 구하여라.
나는 네 사랑만큼 준다. 너도 알지 않느냐.

신앙은 사랑으로 맞는 것이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욕심으로도 환경으로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맞을 수 없다.
나를 반길 수 없다.
나를 맞고 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기도의 시작은 사랑으로다.
신앙을 무엇으로 부를 것이냐?
밥 먹으라고 부를 것이냐
잠자라고 부를 것이냐?
사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시작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 시작을 잘 하여 기도의 길 만들어라.

사랑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랑으로 나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급해도 사랑이다.
너는 급해서 다른 것을 먼저 고하나
내가 급한 것은 사랑이다.
네가 사랑만 주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바로 준다.
말씀도 그러하다.
그러니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는 자가 나다.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보다 더 잘 아는 이가 나다.
그러니 내게 구하고 응답 받아라.
모든 열쇠의 키는 사랑이다.

네 사랑을 늘 본다.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사랑이 지름길이다.
안 보인다 말고 불러라. 고백하여라.
나는 기다리지만
네가 다른 외침을 하면
듣기는 하나 가까이 가는 것은 더디다.
사랑해서 부르고 고해야 내가 가까이 가고 들어 준다.

사랑이 그만큼 중하고 귀하다.

나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불러야 사랑인 내가 온다.
사랑은 사랑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
네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본다.
지금 키울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생명같이 보화같이 보아라.
생명 잃어버리지도, 보화 뺏기지도 말아라.
늘 마음 점검이다.
기도의 시작은 사랑이다.
사랑길 인도자 사랑의 주 예수니라.